

# 미국장로교 2019 제 사십 칠 차 총회 결의안들

총회 서기 L 로이 테일러

## 제 44 차 총회 장소, 텍사스 주 달라스 시, 2019/6/25-28

제 사십 칠 차 총회는 텍사스 주 달라스 시에서 단기형으로 회합하여, 수요일 오후 1:30 에 시작하고 금요일 정오 전에 폐회했다. 88 개의 모든 노회에서 827 교회들을 대표하는 총 1,616 명(강도 장로 1,029 명과 치리 장로 407 명)의 총대가 등록했다. 노스 텍사스 노회가 주최한 총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밀고 나아가라”였다. 치리 장로 릭 오웬이 주최 위원회 회장이었다.

예배는 총회의 중요한 일면이다. 수요일 성찬 예배에는 은퇴하는 총회 의장 어윈 L.인스 주니어 박사가 고린도후서 4:3-6 을 본문으로 하여 “영광을 위해 계속 마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목요일에는 닷윗 캐씨디 목사가 시편 145:1-3 을 본문으로 하여 “미래의 간략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금요일에는 라이언 앤더슨 목사가 요한계시록 3:14-22 을 본문으로 하여 “망상들, 은혜를 만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금년에 전 총회적으로 열린 세미나는 “품위 있는 대화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기”였다. 그 주제가 적절했는데 그것은 후에 총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는 사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어윈 인스 박사, 션 루카스 박사, 브라이언 채플 박사와 닷윗 리치터 목사였다. 총회 서기 로이 테일러 박사가 사회를 했고 요엘 세인트 클레어 목사가 문답 시간을 도왔다.

## 시무 장로 J. 하워드 도나회, 총회 의장

미국장로교는 격년으로 목사 혹은 시무 장로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금년에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노회의 치리장로 J. 하워드 “하위” 도나회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도나회씨는 삼십 이년 동안 미국장로교 치리 장로였다. C. S. 루이스와 프랜시스 웨이퍼가 초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지난 이십 육 년 동안 총회 총대였다. 그는 당회 서기로, 당회 의장으로, 노회 서기로, 노회록 검열위원회와 헌의위원회 같은 총회의 총대들 위원회들의 회원으로 섬겼고 총회 상임법사위원회에서 이십 년 동안 섬겼다. 그는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와 결혼한 지 삼십 사 년이 되는 그의 아내 데비 사이에는 다섯 장성한 자녀들과 손자 하나를 두고 있는데 곧 다른 손자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메리칸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도나회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사안들을 통과하며 총회를 능숙하게 조종했다. 우리 의장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https://byfaithonline.com/howie-donahoe-elected-moderator-of-47th-general-assembly/>에서 볼 수 있다.

## 총회 차원 사역들의 리더십 교체

- 미국장로교 재단의 이사회는 시무 장로 디모데 W. “팀” 타운슨드를 선출하여 시무 장로 랜텔 스테어를 계승하도록 했다. 그는 미국장로교 재단의 회장으로 이십 일년 동안 섬겼는데, 그 기간 동안 재단의 자산은 이천만 불에서 팔천 육백 사십만 불로 증가했다.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은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의 회장으로 십이 년 동안을 섬기고 은퇴를 기대하고 있는 시무 장로 게리 캠벨의 계승자를 찾기 위해 2018 년 팔월에 교체 위원회의 구성을 광고했다. 강도 장로 요나단 메드라이 교체 위원회의 의장이다 <https://pcarbi.org/search/>.
- 총회는 시무 장로 윌 후스가 로드 메이스 박사를 계승하여 2020 년 1 월 1 일부터 학원선교위원회의 코오디네이터가 되도록 선출했다. 로드 메이스 박사는 1999-2013 에 학원선교회 코오디네이터로 또 2018 년 삼월 이후 임시 코오디네이터로 섬겼다. 후스씨는 클렘슨

대학을 졸업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클럼슨 시에 있는 클럼슨 장로교회의 치리 장로이다. 그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가장 큰 건축 회사들 중 하나인 트레헬 건축 회사의 사장이다.

- 일년 임기의 행정 위원회 총회 서기 및 코오디네이터로서 로이 테일러 박사가 스물 두 번째로 선출된 후, 그는 2020년 제 48차 총회가 폐회될 때 은퇴하겠다고 광고했다. [후임] 공천은 <https://www.pcaac.org/stated-clerk-search/>에서 할 수 있다.

## 열 개의 총회 차원 사역들에 관한 경과 보고서

- **행정위원회/총회 서기 사무실** - 총회를 화요일 저녁에 시작하는 것으로 복귀한다는 상정안이 인준되었다. 총회 때 온라인으로 원거리 투표를 허용하자는 헌의안은 인준되지 않았다. 모든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정책 지침서들에 미국장로교 헌법이 모든 정책들에 선행한다고 하는 진술서를 앞에 붙이거나 첨부하자는 헌의안은 수정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다. 이것은 이미 미국장로교 법인정관 제 8항 제 1조에 진술되어 있다. 열 개의 총회 사역들의 예산은 인준되었다.
- **제자사역위원회** - 2018년 은퇴 및 혜택 재단에 준 115,000불의 여성들의 사랑의 기금은 미국장로교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사역을 출범하게 했다. 제자사역위원회는 자체 회합들, 행사들, 블로그들, 소셜 미디어 및 자체 웹사이트 <https://pcacdm.org/>를 통해 미국장로교의 사람들을 공급원들과 연결 시켜 주는 것을 추구한다.
- **커버넌트 대학교** - 커버넌트 대학교는 36개 주와 11나라들에서 온 296명의 새 학생들을 환영했고, 다섯 새 정규 교수들을 임명했으며, (다목적 건물인) 컬크의 개조를 시작했고, 칠년 전략 계획을 개발했다.
- **커버넌트 신학교** - 커버넌트 신학교 이사회와 총회는 커버넌트 신학교를 총회 감독으로부터 분리하자는 헌의안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커버넌트 신학교는 두 새로운 (온라인과 거주용) 합성 학위 과정들, 신학연구석사와 목회석사를 추가했다.
-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선교회원회는 교회 개척, 교회 생신 및 장애 사역 참여, 메타노이아 감옥 사역들, 재난 대응, 채플린 사역들과 소수자들의 신학 교육에 기부하기 위한 유니티 기금 등과 같은 선교적 동반 사역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 **세계선교위원회** - 세계선교위원회는 95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630명의 장기 선교사들, 2,279명의 단기 선교사들, 또 703명의 국내 동역자들을 두고 있다. 세계선교회원회의 “여성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진술문”에 대한 헌의안 41은 내년을 위해 세계선교회원회와 세계선교위원회 총대위원회로 다시 위탁되었다.
- **미국장로교 재단** - 미국장로교 재단은 현재 팔천 육백 사십만 불의 자산을 갖고 있다. 2018년의 기부금은 천백 팔십만 불이다. 2018년 분배금은 천백 사십만 불로, 미국장로교 교회들에게 사백 칠십만 불, 미국장로교 위원회들과 기관들에게 이백 십만 불, 그리고 다른 복음주의 사역들에게 칠백 육십만 불이 분배되었다.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은퇴 및 혜택 재단은 7,500명의 미국장로교 목사들과 직원들의 은퇴 계정들을 갖고 있고, 556,375,106불이 투자되었다. 2017-2018년 구제 현금과 사역적 구제를 위한 다른 기부금들은 총 775,254불이 되었다.
- **학원선교위원회** - 학원선교위원회는 다양한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정된 개혁주의 신학과 유연한 방법론을 갖고 있다. 미국에는 163학교에, 해외에는 6학교에 학원선교위원회의 목회자들이 나가 있다. 16학교에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 학원선교위원회 목회자들이 나가 있다.
- **릿지 헤이븐 회관** -릿지 헤이븐은 노스 캐롤라이나 주 브리바드 시에, 또 아이오와 주 코노 시에 회관들을 갖고 있고, 2018년에는 도합 10,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을 접대했다. 브리바드는 연중 무휴 사역을 하지만, 코노 회관은 2018년에 한 번 두 주간 캠프를 시작했고 2019년에는 사 주간 캠프로 확장할 것이다.

## 노회록 검열위원회

총회가 두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상당한 논쟁 후 조치를 취했다.

- 노회가 헌법 40-5 하에 상임법사위원회 앞에 소환되어, “중요한 과오 혹은 지나치게 비헌법적인 [회의 진행]”을 포함하는 “믿을 만한 보고서”에 응답하고, “의문이 있는 소송건에서 하위 치리회가 해 온 것 혹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주도록” 지시 받았던 미시시피 벨리 노회록에 관한 추천안. 총회는 노회검열위원회의 추천을 인준했다.
- “우리 교리 체계의 근본적인 것들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총운세 16-3.ㄱ.5) ㄷ) 라고 노회가 수용했던 어떤 목회자의 웨스트민스터 표준과 다른 [견해]의 진술에 대해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는 노회의 권리에 관한 갈보리 노회록에 대한 추천안. 총회는 2018 년에 했던 대로 갈보리 노회를 위해 본질의 예외를 확인했다.

## 대외 교단 관계 위원회

총회는 다른 개혁주의 교단들과 상호 교단 교류가 있는 단체들의 여러 대표들에게서 문안을 받았다. 샌트랄 캐롤라이나 노회가 미국장로교는 국내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떠나야 한다는 (2011-12 헌의안과 유사하지만 얼마의 추가 주장들을 더한) 헌의안 23 을 상정했다. 세계선교회는 1973 부터 국내 복음주의 협의회의 회원으로 있어 왔다. 총회는 1986 에 국내 복음주의 협의회에 가입했다. 대외 교단 관계 항존위원회는 총회가 헌의안에 부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추천했다. 총대 위원회는 총회가 헌의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추천했다. 총회는 헌의안에 대해 또 다시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헌의안들

헌의안은 일반적으로 총회가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노회의 요청이다. 2019 년에는 마흔 여덟 헌의안들이 총회에 제출되었다. 모든 헌의안들의 목록은 <https://www.pcaac.org/general-assembly/overtures/>에서 볼 수 있다. 총회는 [다음 헌의안들을] 인준했다.

- 헌의안 4, 성경적 성에 대한 성경적 남성 및 여성에 관한 회의의 “내쉬빌 선언문”은 성경적으로 신실한 선언으로 선언할 것.
- 헌의안 6, 고인이 된 직분자들에 관한 건의서들을 불허하도록 총회운영세칙(총운세) 11 과 13 을 수정할 것.
- 헌의안 7, 가정 폭력과 성 폭행에 관한 임시 연구 위원회를 구성 할 것. (여덟 다른 헌의안들이 이 헌의안을 참고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 헌의안 11, 북미주 개혁장로교회(RPCNA)의 “성 성향에 관한 현대의 조망들: 신학적 및 목회적 분석”을 추천할 것.
- 헌의안 18, 총운세 11-5 가 복수의 총대 위원회들에게 헌의안들을 위탁하는 것을 금할 것.
- 헌의안 42, 동성애, 동성애 이끌림 및 성 전환주의에 대한 문제들에 각별한 주의를 두고 인간의 성의 주제에 관한 임시 연구위원회를 수립 할 것. (세 다른 헌의안들이 이 헌의안을 참고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총회가 유산과 동성애에 관한 이전 선언문들을 재 확인 할 것을 요청하는 여러 헌의안들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꿀 것이 아무 것도 없으므로 규칙 위반으로 배제되었고 (새만통 [11 판] 104 쪽, II. 24-3), 결과적으로 이전 선언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개의 소수 보고서들이 헌의위원회에서 제출되었다. 채택된 것은 없다.

총회는 안수 받지 않은 사람들(남자들 혹은 여자들)이 총회 항존 위원회들 혹은 기관들의 이사회의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로 섬기는 것을 허락하라는 네 개의 헌의안들을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총회 동영상들

총회의 회의들과 예배들을 녹화한 동영상들은

<https://livestream.com/accounts/8521918/events/8720909> 에서 볼 수 있다.

## 교회 헌법 수정에 대한 조치들

헌법을 바꾸는 것은 한 총회의 다수표, 노회들의 삼분의 이의 다수표와, 차기 총회의 최종 다수표를 요구한다 (헌법 26-2).

### 최종 승인을 받은 헌법 수정안들

- 헌법 8-1; 8-3 장로들의 자격에 관하여
- 헌법 25-11 회중이 미국장로교를 떠나려면 삼십 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할 것
- 헌법 35-11 증인들인 판사들의 자격 박탈 과정에 관하여
- 헌법 9-3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대로 결혼의 성격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

###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헌법 수정안들

- 헌법 30-1 스스로 상충된다고 하는 유기 정직에 관하여
- 헌법 30-3 구체성이 결여되어 보인다고 하는 무기 정직에 관하여
- 헌법 32-19 교회 치리회들 모든 차원에 있는 어떤 수찬 교인에 의한 조연도 허용한다는 것.

### 승인을 받도록 노회들에게 내려 보낸 헌법 수정안들

- 헌의안 9, 헌법 42-4; 43-2; 43-3, 소송건들을 접수하기 위한 방법과 마감일에 관한 수정.
- 헌의안 17, 헌법 32-8, 증인들에 의한 동영상 증언을 허락하도록 하는 수정.

## 숫자로 본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는 총회에 2018 년 통계를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

- 총 교회 수는 4 교회의 증가로 1572.
- 개척 교회 수는 11 교회 증가로 355.
- 목회자 수는 69 명 증가로 4,951.
- 주일학교 출석수는 679 명의 증가로 94,349.
- 총 교인수(수찬교인, 비수찬교인, 목회자들)는 10,057 명의 증가로 384,793.
- 총 보고된 헌금액은 33,574,188 불 증가로 870,679,800 불.

주류 교단들의 큰 감소와 얼마의 복음주의 교단들이 정체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현재 미국장로교의 점진적 성장은 주목할 만 하다.

## 제안된 기도, 헌금과 행사들

- 10 월 중 지역 당회들이 결정한 대로 커버넌트 대학을 위한 기도.
- 2019 년 11 월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달 (세계선교위원회)
- 지역 당회들이 선택한 날짜에 세계선교위원회의 사랑의 사역들을 위한 특별 헌금.
- 2019 년 11 월 3 일은 전 세계의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날 (세계선교위원회)
- 연례 구제 사역 헌금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총회는 십일조와 헌금 총액의 0.35 퍼센트에 기초하여 교회들이 행정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한 요청을 인준했다 (단 기금 마련 프로젝트는 제외함).
- 제 사십 팔 차 총회는 2020 년 6 월 16-19 일까지, 알라바마 주 버밍햄 시에서 회합 할 것이다.